

Sermon of the Week:

Union through Death: Our Restoration to God

Passage: 1 Corinthians 1:22-24 (ESV)

Date: April 13, 2025

Pastor: Dongsuk Chung

To the average person, the death on the cross appears as failure—something to be despised. This is because both the world and religion desire success and happiness in this life. When Jesus performed miracles, many followed Him and wanted to make Him their king. They saw Him as someone who could make their lives easier and more comfortable. But when Jesus was treated like a criminal and suffered, those same people turned away from Him. The Jews were looking for a sign of a Messiah—like Moses—who would save them and make them great and powerful through God's miracles, while the Greeks were seeking wisdom. To those who are focused on prospering in this world, the cross of Jesus is a stumbling block, foolishness, and a cause for despair.

Yet God created humanity in His image and likeness so we could be united with Him. Our true dignity lies in that union and in reflecting Him. However, sin separates us from that place of union with God. Rather than staying close to Him and allowing Him to dwell within us, we have left that place in order to chase honor, power, wealth, and unite ourselves with the world. But in the end, even if we gain all the riches and fame that this world offers, we end up like Solomon, who said, "All is vanity." Because we were made in God's image and likeness, only when we encounter Him are our problems truly solved. Clinging to things of this world leads only to destruction.

But as sinners born from Adam's lineage, how can we ever be united with Jesus, the Son of God? Jesus, who raised the dead and calmed

the wind and waves—He possesses divine life. How could He possibly share anything in common with us?

There is one point at which Jesus and we become one, where we become the same essence: at the cross of Calvary. At that moment, when the holy Son of God took on flesh and became a sinner to bear the sin of all humanity, we became united with Him. When Jesus alone bore the suffering and death that we should have endured as He shed His blood on Calvary, even the Father turned His face away. In that wretched abandonment, Jesus' death became our death. It is through the death of the cross that we can enter into Christ and He can enter into us. The place where Jesus was forsaken—that is the only place where we can encounter Christ.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begins at the place where Jesus was forsaken on the cross. Just as ashes when fully burned are considered the cleanest state, and a leper is declared clean only when the disease has spread over his entire body, resurrection life begins when we realize we are utterly dead in our sin. That's why the place of complete death—the place where Jesus died—is the most blessed place. We constantly strive for success, but if a person from the line of Adam succeeds—he who is formed of sin and death—the end is still destruction. For us, the path towards death is the path to life. As Jesus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Therefore, Christians must love the cross. This is the path of life and the way of eternal salvation.

1 Corinthians 1:28 says, "God chose what is low and despised in the world, even things that are not, to bring to nothing things that are." The place we encounter disgrace, contempt, and ignorance is where we meet Christ at the cross. Illnesses and hardships in our lives are all opportunities where we can meet Christ at the

cross. For those who are saved, difficult circumstances challenge us to ask what truly matters: is it success and healing in this world, or is it God's will being fulfilled? We come to understand that praying for the things of the world are not true prayer requests, but rather situations through which God's will may be accomplished. Our hardships become opportunities to turn toward God and hear His voice. In His providence, they work together for our good. The proper response to hardship for a believer is not to cry out, "Fix this! Heal me!" but rather to surrender and pray, "Lord, let Your will be done."

Even our own righteous thoughts—trying not to sin, striving for holiness—must be crucified. Thoughts like "I must pray harder" or "how can you pray after committing such a sin?" are traps from Satan, attempting to revive our soul apart from God. But God has already abandoned our old selves on the cross. Trying to be holy through our own effort is not righteousness—it is rebellion against the cross.

As Paul said in Galatians 6:14,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the answer to every problem is the cross—whether it be sin, self, guilt before God, accusation before Satan, hidden sins within us, death, or demonic oppression. Every one of these is dealt with at the cross. Therefore, as those made new in Christ, let us praise God and love the cross. Whatever comes our way, may we stop striving to fix it ourselves and instead hand it over to the cross. May we enter into death so that the Lord may bring resurrection and resolution. May His grace abound in our lives.



Please scan the QR code with your phone's camera for the link to the YouTube video of the full sermon.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일 오전 9:30 - 오후 1:30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층 예배실

심니소식

나성교회



심성교회

APRIL 27, 2025

NASUNGCHURCH.NET

ISSUE 52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24절

날짜: 4월 13일, 2025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망하는 것이며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종교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세우자며 따라다녔습니다. 세상에서 먹고살기 편하게 해줄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적으로 자신들을 구하고 부강하게 만들어 줄 메시아의 표적을 찾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리는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위치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분 곁에 있지 않고 그 위치에서 떠나 명예, 권세, 돈을 찾으며 세상과 짝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를 가져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처럼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 마지막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신의 생명을 가진 분이신데 어떻게 사람과 동질인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와 내가 하

나가 되는 지점, 동질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신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죄인이 되셨을 때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고 갈보리에서 피를 쏟으실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마저 그분을 버렸습니다. 그 비참한 버림을 받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 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려진 위치가 오늘 나의 위치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에 버려진 위치에서 시작됩니다. 불에 완전히 타서 더 이상 탈것이 없는 재의 상태가 가장 깨끗한 것과 같이,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을 때 정하다 한 것 같이,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될 죄인임을 알 때 부활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위치, 철저한 죽음의 위치가 참 복된 위치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만 죄와 죽음으로 되어있는 아담의 사람이 성공하면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에게 사는 길은 바로 죽는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좇으라"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라는 말씀에서 멸시, 천대, 무식은 모두 십자가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나 어려움은 모두 십자가의 영역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즉 세상에서 얻는 것들이나 병 고침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기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제목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되며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좋은 생각, 즉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노력, 거룩하게 되려는 노력 또한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해야지' 또는 '내가 이런 죄를 지어 놓고도 기도를 해?' 하는 생각들은 사탄이 우리의 혼을 살리려고 하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십자가에 이미 버리셨습니다. 이미 버리신 것을 내가 찾아와 스스로 거룩해 지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라는 바울의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죄 문제, 자아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죄, 내 안에 와 있는 사탄 문제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죽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의 전체 영상은
오른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나성교회 온라인 헌금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실
때는 왼쪽의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 주세요.

중보기도

교회 공통 기도제목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성도들 안에 살아 움직이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사역자들 (정동석 목사, 서영민 목사, 이해운 목사, 김재형 목사, 차재성 목사, 제레미 서 목사)의 사역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될 수 있도록
- 나성교회와 삼성교회 연합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 지방과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 된 지체들을 위해
- 섬이나 오지 등 교회가 없는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 새로 나오시는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광주기도처의 성도들을 위해
- 나성교회 영어부(EM)의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 임주영 목사 멕시코 선교를 위해 (가족들의 현지 적응과 복음 사역)
- 포항 등 각 지역에 기도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나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담임목사님의 건강회복과 쾌유를 위해
- 강준규 형제 (제 4,5남선교회) - 눈 망막 수술을 하였습니다. 회복을 위해
- 이시용 장로 (모세회) - 담석으로 인해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위해
- 김폴리 자매 (제3여선교회) - 폐암 4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수영 장로 (여호수아회) - 무릎 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회복과 건강을 위해
- 심순근 권사 (모세회) -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 김영자 집사 (모세회) - 폐암 4기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 양홍숙 권사 (모세회) - 신장질환과 심장이상의 합병증으로 요양원에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 최지민 자매 (제1여선교회) - 유방암과 림프 전이가 되어 치료하는 중에 면역력이 떨어져 위와 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신 건강 회복과 강건을 위하여
- 한아림 자매 (청년회) -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으며 강건케 되기를 위하여
- 피터 송 집사 - 아들(폴 송)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장도 구할 수 있도록
- 홍경아 - 한국에서의 생활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삼성교회 중보기도 제목

- 김옥경 집사 (82세) - 치매와 우울증 증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김현숙 집사 (61세) - 귀 진주종 수술 후 두통과 심한 귀 통증이 심합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신자 집사 - 자녀들 (하영주, 주연, 승찬, 영숙) 알콜중독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접하고 영혼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권오중 집사 (47세) - 척수종양으로 인한 사지마비(가슴 아래 하반신) 장애입니다. 강직약, 통증약 등 약을 많이 먹는데 약기운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장현주 집사 - 신장 기능 저하(40% 정도)와 당뇨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장 약을 먹을 때 어지럽고 힘이 듭니다. 신장 기능과 당뇨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한순희 집사 - 아들들(곽민준, 곽요한)에게 구원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신 OO 집사 - 자녀(여고생)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고발이 되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실명으로 기도 제목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교소식

멕시코 엔세나다 선교센터



샬롬! 예수님의 부활로 산 소망을 얻은 형제자매들에게 멕시코 엔세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허락하신 안식을 경험하며 지내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총 여덟 가정이 함께 모여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육의 양식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걸어서는 거리가 조금 있는 캄보(원주민 마을) 가족들이 몇 있었기에 차량을 통해 모여 함께 예배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업고 예배에 참석한 어머니부터 친구들과 웅기종기 손을 잡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 된 우리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겠구나 생각했던 예배였습니다. 앞으로 이 영혼들 모두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며 산소망을 가진 자녀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5월 마지막 주에는 김준규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애틀랜타 플래그십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멕시코에 방문 예정입니다. 화상 통화로 몇 회 모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실 선교의 모습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역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소식 마칩니다. Gracias!

임주영 목사



아들람 선교회: 홈디포 사역

지난 4월 19일 아들람 선교회를 섬기시는 김학철 목사님과 함께 나성 교인 6명이 세 곳의 Home Depot(El Monte, Alhambra & Monrivia)에서 선교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찌푸렸던 날씨가 지나가고 밝은 아침 햇살이 저 희들을 반겼습니다. 부활절 주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그런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은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목사님과 섬기시는 형제자매님께서 한 구석진 파킹장에서 준비를 하며 찬송 음악을 틀자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 145장 “갈보리 산 위에”를 스페인어, 중국어와 한국어로 연속해서 불렀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스페인어로 전하시고 기도로 마무리 하셨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오히려 “아멘” 하는 소리는 더 들리고 또 두 손을 모으고 경청하는 이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예배 후 부활절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타말레스(Tamales)와 함께 여러 음식들과 음료수, 또 후원해 주신 양말들을 전달하였습니다. 한 30-40명이 음식을 받으며 서로가 “Dios te Beniga - God bless you”와 “Jesus Loves you”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통해 전달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 선교에 동참하는 대만인과 중국인 형제자매 그리고 이 선교를 길 건너에서 보고 더욱 가까워 파라솔을 기부했던 이웃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니라”는 잠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그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선교를 위해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성교회 선교부

신앙 Q&A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품게 되는 질문들이 생기곤 합니다. 본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을 담임 목사님께 여쭙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접 주고받은 대화를 신문 형식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은 간결하게 다듬었습니다.

Q 평소에 믿음이 좋으셨던 분들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믿음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A 그런 모습은 대개 믿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력이 약해지고, 때로는 자기 생일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순교자 위치만 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십 년간 감옥에서 고문과 세뇌를 당했습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잠시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알려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몸과 정신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이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베개 밑에서 발견된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은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실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그 쪽지는 당시 공산 치하에서 발견 되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내용이었지만, 그의 흔들린 손글씨를 통해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사실이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그 간증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예전 한국에서 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일부 약들은 복용자의 성격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약은 도둑질 충동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이라기보다, 약의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임종을 앞두고 하는 말이나 행동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그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육신의 한계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번주 묵상

아래의 묵상 질문들을 활용해서 들었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1페이지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과 본문 말씀(고린도전서 1장 22-24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은혜가 되었던 부분을 간단히 적어보세요.

2.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이 위치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3. 묵상한 말씀을 통해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나 소망을 품게 된 말씀을 아래에 간단히 적어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후에 2페이지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삼나소식 1주년을 맞이하며

삼나소식은 한국 삼성교회와 미국 나성교회의 연합 소식지로, 두 교회의 이름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서 ‘삼나소식’이라 명명되었습니다. 동시에 ‘삼나’는 ‘삼라만상’, 곧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말로, 복음의 소식이 열방 가운데 퍼지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삼나소식은 정동석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삼성교회와 나성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나성교회와 삼성교회가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몸 된 교회로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간증들, 그리고 신앙 속에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 등을 함께 실어, 성도들이 주중 언제든지 펼쳐보며 영적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소식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27.2025.

삼나소식팀 일동

페이지	목 차
1	이번주 은혜의 말씀
2	중보기도 제목
3	삼나소식 1주년을 맞이하며, 주간소식
4	삼나소식팀 간증
5	삼나소식팀 간증(이어서)
6	신앙 Q&A, 이번주 묵상
7	선교소식(멕시코 엔세나다, 아둘람 선교회)
8	영어 번역

신앙 Q&A 질문 제보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나 신앙 생활 가운데 생기는 질문들 등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메일(samnanewsletter@gmail.com)로 보내주시거나 로비에 있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세요. 보내주신 질문들 중 선별하여 삼나소식지에 질문과 목사님의 답변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간소식

- 다음 주일에는 5월 정기행정위원회로 모입니다. 행정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 5월 1일부터 65세 이상 시니어 교우들을 위한 나성 시니어 스쿨 봄학기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 일정: 매주 목요일
 - 신청 방법: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 시니어 스쿨 설명 안내지와 신청서를 픽업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들께서는 시니어 스쿨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나소식 웹사이트



<https://samnanews.modoo.at>

삼나소식팀 간증

지난 1년 동안 삼나소식을 함께 발행했던 팀원들이 지난 1년간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간증은 익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삼나소식은 그동안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정동석 목사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제 부족한 한국어 어휘 실력으로 인해 놓쳤던 부분들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나소식의 영어 번역을 작업하는 과정은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겸손의 시간이었습니다. 때때로 제 육신은 제 힘으로 열심히 해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역이 주님의 일임을,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설교 요약에서 묵상한 진리들이 한 주 동안 제 삶 가운데서 계속 생각나고, 어떤 때는 설교에서 들었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 요약들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풍성히 자라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나성교회를 10년 넘게 다녔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언어 장벽 때문에 정목사님의 설교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매주 토요일마다 삼나소식 작업을 돕고, 번역된 설교를 읽으면서 목사님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이를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워갈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삼나소식 팀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큰 은혜였습니다. 매주 모여 교제하고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일꾼들을 보내 주시고, 그분들도 교제에 참여하며 삶의 변화를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간증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삼나소식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저의 손이 아니라 장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완벽하고 신실한 번역을 하기 위해 제 힘으로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지고 막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순간마다 내가 또다시 내 뜻대로 하려 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놀랍게도 일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게, 팀의 분위기가 역시 더 편안하게 흘러갑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은, 처음에는 이 사역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 혹은 외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매주 삼나소식의 메시지가 사실은 저를 위한 말씀임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처음 요약본을 볼 때는 문법이나 흐름, 정목사님이 전하신 영적인 의미에 맞는지 검토하는 데 집중하지만, 토요일에 모여 함께 검토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 요약 내용이 마치 그 주에 제가 겪은 문제에 딱 들어맞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어느 주에는 목사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축복이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저는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가정에서 힘든 일이 생기면서 저는 다시 감옥 같은 상황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상황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섭섭해하였습니다. 제가 항상 피하고자 했던 그 '감옥'에 다시 들어온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설교 요약을 다시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주시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순간순간 감정에 빠져들거나 원망과 걱정으로 사로잡히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다시 올라올 때면, 저는 아버지께 부르짖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리고 제 삶에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제게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까지 보여주셨는데도, 저는 종종 그것을 잊고 애굽의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일이 연달아 꼬이고, 파도가 계속 밀려와 마치 물속에 잠기는 듯한 날에도, 그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것은 '폭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시금 붙잡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저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모든 폭풍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저를 위한 훈련입니다.

삼나 소식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삼나 소식 편집 봉사를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맡았을 땐 부담도 컸었는데요, 편집을 하며 자연스럽게 읽게 되는 말씀들이 참 은혜롭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 감사함으로 이 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삶을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삼나소식이 벌써 1주년이 되었고, 1주년을 돌아보며 간증을 쓰는 이 시간, 제가 삼나소식 팀에 참여하면서부터, 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작고 미미하지만, 지난 1년간 여러모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와 서포트를 받고 있어, 이 또한 세밀히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라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팀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나성교회와 삼성교회의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신 콘텐츠를 삼나소식지가 프린트되기 하루 전 금요일 저녁, 국문 파트를 리뷰하며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시간이 제게 삼나소식지를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페이지 "이번주 은혜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기도하고, 2페이지 중보기도를 읽으며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삼나소식 팀 멤버로 은혜의 나날들을 보내다, 제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어려운 일이 닥쳐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고, 한국에서 삼성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새신자반에서 매번 눈물로 감사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중 한 형제님의 간증이 놀라웠습니다. 그 형제님께서 정동석 목사님 주일 설교 말씀을 요약한 삼나소식의 "이번주 은혜의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저도 이 형제님이 받으시는 은혜를 저도 받고 있어서 깊이 동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주 은혜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다시금 강하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마다 저도 해당 단락을 적어놓았습니다. 삼나소식지 "이번주 은혜의 말씀"에 나온 본문 중 저의 PC 모니터 배경화면으로 깔아 놓고 매일 읽는 구절을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평생 옛사람에게 종노릇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으니 염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내 앞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죽어야 할 내가 살아 있으면 내 앞에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은 전부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무거운 짐으로 합의 자손이 되어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평안하지만, 내가 살아나면 전부 염려, 근심을 내가 해야 하고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1년 동안 삼나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를 다루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동석 목사님께서 삼성교회와 나성교회를 연결하는 소식지를 만들고자 하시는 비전에 깊이 동의하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하나둘 모이고, 실제로 소식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이끌고 계심을 느끼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주 소식지를 준비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점점 더 제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장갑'이 되기보다 제 열심과 노력으로 이 일을 잘 해내고 싶어하는 옛 자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잘 안될 때는 자신을 정죄하며, 오랫동안 우산 밖에서 비를 다 맞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아, 나는 지금 우산 밖에 나와 괴로운 것이구나. 일하는 동안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사탄도 이미 끝났구나!'라는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를 묶고 괴롭히던 생각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더욱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그 십자가의 기쁨을 분명하게 전해주시는 정목사님의 말씀을 글로 정리하며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주가 피곤하고 지쳐도, 교회로 소식지 작업을 하러 가는 길, 토요일마다 팀원들과 함께 마지막 검토를 하고 인쇄된 소식지를 접으며 교체할 때, 그리고 소식지 내용을 준비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해주시는 팀원들께, 늘 격려와 기도로 힘이 되어주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삼나소식이 더욱 발전하여, 성도님들 각자의 깊은 주님과 체험이 나누어지고, 믿음 안에서 고민하던 문제들에도 해답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주중 언제든 펼쳐보며 영적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소식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